

세계는 지금...

국제 사진 뉴스

출처: 신화넷



한국 대통령 윤석열, ‘비상계엄’ 대 국민 담화 발표

12일 오전,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방송을 통해 대 국민 담화를 발표, 지난 3일에 실시한 비상계엄에 대해 변명하였다. 사진은 이날 한국 국민들이 서울 기차역에서 생방송을 통해 윤석열의 대 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는 장면이다.



미국 남캘리포니아주 정전으로 5만 3,000명 피해

미국 남캘리포니아주 말리부 도심 인근에서 발생한 관목림 화재가 계속 번지고 있다. 미국 현지 동부시간으로 12월 10일 밤까지 화재 면적은 10.98평방킬로미터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5만 3,000명의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수단 수도권 폭격 피해, 민간인 170명 사망

수단 무장부대와 수단 신속지원군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랑족이 상대 통제구역내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하면서 9일과 10일 이틀 동안에만 최소 170명이 숨졌는데 그중 대부분이 민간인이다. 이는 최근 반년 동안 쌍방 사이에서 발발한 가장 치열한 전쟁이다.



가자지대 텐트 속에 갇힌 동년

12월 9일, 팔레스티나 가자지대 보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최소 4만 4,500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숨졌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부녀와 어린이이다. 이로 인해 가자지대 인구 230만명중 90%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사진은 가자지대 가자시의 한 임시 텐트구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스라엘 국방부 : 수리아에 비군사화 ‘방어구역’ 설치

10일,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카츠는 이스라엘은 ‘적대세력’이 이스라엘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수리아 군사완충지대의 수리아측에 비군사화 ‘방어구역’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란고원은 수리아 서남지역에 위치해있는 하나의 좁고 긴 지대이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의 일부 지대를 점령했으며 1981년 이곳을 정식 점령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금’, 일본 2024년도 한자로 재차 당선

사진은 12월 12일, 일본 교토에서 시미즈사(清水寺) 주지(住持) 모리 기요노리(森清範)가 붓으로 쓴 일본 2024년도 한자 ‘금’(金).

12일, 일본한자능력검정(検定)협회는 교토 시미즈사에서 일본의 세태와 민정을 반영한 한자 ‘금’을 년도 글자로 지정했다.

‘금’자가 일본 올해의 년도 한자로 선정된 것은 2021년 이후 다섯번째이다.



마크롱, 트럼프·젤렌스키와 3자 회견

7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좌3)은 엘리제궁에서 노르프담 재개관식에 초청된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3자 회견을 가졌다.

마크롱은 회견후 소셜미디어에 “노르프담으로 인해 3자가 모였다.”며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계속 함께 동행하자〉는 글을 올렸다.

젤렌스키도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마크롱과 ‘홀륭하고 원활한’ 만남을 가졌다며 “우리 모두 전쟁을 빨리, 공정하게 끝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토이기 치르위그 국제통상구 재개방

9일, 토이기 남부의 하타이주와 잇닿아있는 수리아 치르위그 국제통상구가 다시 개방되었다. 수리아 과도정부가 세워지면서 토이기 경내에 있던 많은 수리아 난민들이 이 통상구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수리아 수도 다마스크 거리

10일, 수리아 매체에 따르면 모하메드 바샤르를 총리로 하는 수리아 과도정부는 이날 정식으로 정부 권력을 인수하고 관리 기한을 2025년 3월 1일까지로 잠정하였다. 사진은 이날 찍은 수리아 수도 다마스크(大马士革) 거리 모습.



애급 까히라, 아파트 무너져 최소 8명 사망

10일, 애급 위생부문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수도 까히라 와이리(瓦伊利)구의 한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최소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사진은 이날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다.